

“오늘이 마지막 참석... 성공한 대통령 임무 마치고 찾아 뵙겠다”

문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사

참여정부 넘어 나라다운 나라 만들것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국민통합 강조 여권 인사들 대거 참여 집권여당 실감

여권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총집결, 집권여당이 됐음을 알렸다.

이날 추도식은 9년 만에 재집권을 한 데 대해 노 전 대통령에게 ‘승전보’를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였으며, 여권 인사들은 추도식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매년 추도식을 지켜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임재정 전 국회의장 등이 추도식장인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잔디광장의 앞줄을 지켰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70여 명의 의원이 일제히 추도식에 참석해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아꼈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함께했다. 추도식에는 시민 1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함께 했다.

추도식에는 국민의당에서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참석했고,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도 함께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견호 씨는 유족 대표 인사말에서 “저와 유족들 역시 이 검격과 회한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며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은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식발을 해 눈길을 끈 견호 씨는 “최근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다.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다”고 웃으며 설명했다. 견호 씨가 인사말을 마칠 때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거듭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일”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의 꿈을, 참여 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정운영의 키워드 중 하나가 ‘국민 통합’이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추도식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님도 어디에선가 우리 가운데 숨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상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운 감정도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노무현의 좌절 이후 우리 사회, 특히 우리의 정치는 더욱 비정상성을 향해 거꾸로 흘러갔고, 국민의 희망과 갈수록 멀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의 뜻을 이어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다. 개혁도, 저 문재인인의 신념이기 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견호 씨 등과 함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포부를 밝혔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일”이라고 선언, 참석자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친노(친노무현)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노 전 대통령의 돌도 없는 친구로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직에 오른 이상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만 참석할 경우 보수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광의 노무현, 치욕의 박근혜 ... 엇갈린 운명의 날

盧, 서거 8주기 추도식에 문대통령 참석 축제 분위기 朴, 뇌물혐의 수감찬 채 법원 출석 피고인 신세 전락

23일,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엇갈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은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2주만에 19대 대통령 신분으로 추도식장을 찾으면서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데 이어 뇌물혐의 재판에 받기 위해 수감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린 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고인 신세로 전락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하늘에서나 서거 8년 만에 정권교체의 기쁨을 맛본 환희의 날이 된 반면, 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치욕으로 기록된 날이 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았다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13년 전인 2004년 5월 13일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탄핵 인용으로 최고의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 탓에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의 표정도 확연히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김해 봉하마을의 8주기 추도식장에 총집결했다. 2007년 대선 참패 이후 스스로 ‘폐족(廢族)’임을 선언한 친노(친노무현)를 포함해 민주당의 화려한 부활은 물론 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9년 만의 정권 탈환에 성공한 문 대통령의 ‘당선신고식’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한국당의 표정은 침뚫함 그 자체다.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명예 퇴진한데 이어 이날 법원에 피고인으로 출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7월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질적 병폐인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계파 싸움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봉하마을 추도식에 당 대표 대신 박맹우 사무총장을 보냈고, 친박계 의원들도 박 대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 법원이나 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이 이루어 했던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영광의 8주기, 박근혜 대통령은 치욕의 범정에 선다”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음미한다”고 총평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영선 특사 에콰도르 가는 까닭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4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열리는 ‘미래노’ 에콰도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3일 청와대가 밝혔다.

에콰도르는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남미 국가로서 그동안 국내의 정치·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사단 파견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한국전쟁 때 물자를 지원한 대표적 우방국인데다 문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도 깊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에콰도르 쾰레아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른바 ‘부산정권’ 발원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사임하고 노 대통령의 정부특보로 있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과격적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른 나라의 현직 장관보다 더 나은 예우를 받았다. 게다가 쾰레아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날 ‘문재인 특

한국전쟁 물자 지원 우방국

미래노 대통령 취임식 참석

문대통령과 개인적 인연도

사’를 만나는 것으로 첫 공식 업무를 봤다.

당시 문 대통령은 “쾰레아 대통령 성이 우리나라 이름과 같으니 각별한 관계”라며 친근감을 보였고 쾰레아 대통령은 “한국사람이 이탈리아에 와서 살면서 쾰레아라는 성을 썼다는 데 자기 조상도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한다”며 화답했다.

쾰레아 대통령은 또 장차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같은 학교를 다녔다면 장 교수의 ‘사다리 건너차기’ 책도 언급했다. 이후 장 교수는 쾰레아 대통령의 경제·산업 분야 조언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같은 인연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당시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에콰도르를 돕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직접 은행계좌로 성금을 접수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형제애를 발휘하여 지난날의 도움에 보답할 때”라고 밝혔다.

쾰레아 대통령은 이후 3선에 성공했으며 이번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특사단 파견을 계기로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양국 신정부 간 경제통상·인프라·개발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Engaging Classrooms, Joyful Schools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한개의 질문

백개의 생각

학부모 특강 및 호남권 11개 대학 공동 대입 설명회

- 일시** 2017.5.26 (금) 13~18시30분
- 장소** 광주교육연수원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 진행** 대학별 발표 및 질의응답
- 특강** 이범 (교육평론가)
새 정부의 대입제도과 미래교육의 변화
- 문의** 진로진학팀 380-4571(-5)

